

# “기업·가계 연체율 상승… 모니터링 필요”

도, 경제정책전략회의 개최... 10개 금융기관 등 참석  
제주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 안정적 관리 제언  
1월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 1.09%... 역대 최고 수준

채무상환 능력이 약화된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이자 차액 보전 등 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시중 은행들이 고금리 기조 속 건정성 관리를 위해 기업과 가계주택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신용대출은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2차 경제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도내 금융여신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수성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장이 “제주지역 여신 동향 및 시사점”을 주

로 발표한 뒤 오영훈 지사 주재로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제주지역 10개 금융기관과 경제, 미래산업, 문화·관광, 1차산업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은 39조2000억원으로 2016년을 고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39조2000억원 중 기업 대출은 20조2000억원, 가계대출은 15조5000억원, 공공 및 기타 대출은 3조2000억원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09%를 기록하며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가 도내 중소기업 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이용실태조사에서도 67.1%가 대출금리, 담보여력 감소, 매출액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자금조달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에 홍수성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장은 “도내 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기업·가계 대출 모두 연체율이 상승하고 대출상환 리스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홍 팀장은 “전체 기업대출 중 비은행금융기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비은행의 기업심사 역량을 점검하고 필요 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가계대출의 경우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주택외담보대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차주의 상환능력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기업과 가계 여신 상황 개선을 위해 정책수혜대상 발굴 관리와 기업 컨설팅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일동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은 “지원 정책과 제도가 기관별로 분산되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다”며 “자격이 되면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체계적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우일 농협은행 제주본부장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경영 컨설팅은 각 은행이 도와 함께 협력해 추진해볼 사항이며,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456@ihalla.com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숨진 이유빈씨 유가족 제주대 교육대학에 5년간 1500만원 기부 약속

“재학 당시 전공 학과  
동아리 위해 쓰였으면”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측은 이씨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백신 접종 후 12일 만에 세상을 떠난 고(故) 이유빈씨(당시 22)의 유가족들이 고인의 모교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 기부금을 약속했다.

23일 제주대에 따르면 고인의 아버지가 지난 22일 제주대 교육대학이 있는 사라캠퍼스 부총장실에서 5년간 15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부금은 제주대 발전기금재단을 통해 기부됐으며, 기부금은 고인이 소속됐던 교육대학 초등영어 교육 전공과, 동아리 활동을 했던 밴드 동아리 작은소리큰울림 소속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씨의 아버지는 “딸이 몸 담았던 대학 후배들을 위해 기부금이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희필 부총장은 “모범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고인 유가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부금은 유가족이 원하는 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이유빈씨는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해 8월 끝내 숨졌다. 유가족들은 현재까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고인의 사망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강다혜기자

# 도내 전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초등 1~2학년은 이론 교육 2시간, 초등 3~6학년은 입수형 실기교육 10시간이 실시된다. 초등 3~6학년 학생 2만7698명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학교 수영장 및 지역 수영장, 인근 해수욕장에서 4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된다.

학교 수영장 보유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생존수영교육 외에 영법교육을 포함한 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내 수영 교육, 방과후 수영, 수영 동아리, 방학 중 수영 특별 프로그램 등 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14개교에 대해 ▷거점수영장 2만7698명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학교 수영장 및 지역 수영장, 인근 해수욕장에서 4월부터 약 8개월간 진행된다.

학교 수영장 보유 학교별로 자체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집채같은 파도 몰아치는 월정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항 방파제에 집채같은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이상국기자

# 대안교육기관 ‘꿈샘학교’ 2024학년도 학사일정 시작

탐라교육원 공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꿈이 샘솟는 학교’(이하 꿈샘학교)가 지난 22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학년도 1학기 입학식을 개최하고 학사일정을 시작했다.

23일 탐라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적응 교육과정을 10개교 13명의 학생이 이수하였으며, 오는 7월까지 약 12주 동안 본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꿈샘학교는 도내 중학생 대상 공립대안교육위탁기관이다. 제도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불안을 겪거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교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대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교육과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기제 방식으로 가동되고 있다. 기본 교과와 제빵, 바리스타 등 진로 체험 교육과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강다혜기자

# 제주경찰청 1분기 치안고객 만족도 ‘전국 1위’

제주경찰청의 올해 1분기 치안고객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1분기 치안만족도 조사에서 86.8점을 받아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중에서 가장 높

았다고 23일 밝혔다.

치안고객만족도 조사는 경찰과 직접 접촉한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 112신고출동, 교통사고 조사, 수사형사 등 4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경찰청의 분야별 치안고객만족도는 민원 95점, 112신고출동 90.4점, 교통사고 조사 89.7점, 수사형사 72.1점 등 4개 분야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이었다.

경찰서 단위별로도 제주동부와 제주서부, 서귀포경찰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상민기자

# “성폭력 전담 기구 마련” 전교조, 도교육청에 촉구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원단체가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발생한 교내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르는 데 대해 “경찰은 철저한 조사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육청은 피해 회복을 위한 철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교육청은 교내 불법촬영과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장기적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해야 하며,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성평등(성폭력) 전담기구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한라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는

아라민형파인즈 2차

교통편의 좋아!

교육 좋아!

착한 분양가!!!

Everything goes well  
민형종합건설주식회사

분양문의 ☎ 064-702-3160~1

사람이 누워있는 듯한 형태로 편안한 건축을 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민형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을 짓겠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대화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